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본 고린도교회
문제점과 한국교회 문제점 비교연구:
고전 1:26-29를 중심으로*

노영근

칼빈대학교 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 40
2. 고린도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 | 41
 - 2.1. 고린도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 43
 - 2.2. 고린도교회의 사회적 구조와 문제점 | 46
3.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주요 분류와 갈등 문제 | 53
 - 3.1. 교회 장소제공 문제 | 53
 - 3.2. 음식 문제 | 55
 - 3.3. 재판 문제 | 59
 - 3.4. 사례비 문제 | 61
4. 한국교회의 문제점 | 63
 - 4.1. 성장지상주의 | 63
 - 4.2. 세속주의 리더십 | 65
 - 4.3. 기복사상과 샤머니즘 | 66
 - 4.4. 권위주의적 리더십 | 68
5. 나가는 말 | 70

* 본 논문은 2018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들어가는 말¹⁾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지도자들의 리더십 갈등 문제요 분쟁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해, 힘있는 소수(dominant minority)와 힘없는 다수(powerless majority)의 갈등과 분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힘 있는 소수와 바울과의 갈등이요 분쟁이라 추정한다. 왜냐하면 힘없는 다수는 힘있는 소수의 세속적인 힘과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녔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세속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힘있는 소수와 힘겨루기를 하며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력을 저지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 갈등하며 투쟁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도 담임목사와 소수의 교회 중진들과의 갈등이요 분쟁일 것이다. 다수의 주일출석(피상적)교인들은 그냥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의 힘과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기 일쑤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담임목사와 소수의 교회중진들 사이의 세속적인 힘겨루기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담임목사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든,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 영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든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고린도교회

1) 한 평생 후진양성과 하나님나라 확장과 복음전파를 위해 애쓰시다 은퇴하시는 임영호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후배 이 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은퇴 후에 사역과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고린도전서 1장 26-29절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해 볼 것이다.

2. 고린도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

고린도교회 공동체²⁾ 내의 갈등과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고린도 서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³⁾ 왜냐하면 독자로서의 우리는 바울에게서 직접 그가 고린도서를 쓴 의도와 이유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 일차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⁴⁾ 즉 고린도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1세기 고린도교회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고린도서가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⁵⁾ 따라서 필자는 고린도전

2)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였다. 장소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아 성도들이 가정을 개방하여 교회를 시작하였고, 가정에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이다 (고전 16:19; 정주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서울: 생명의 양식, 2017], 90-91).

3) B.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xiii.

4) T. 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65.

5) S.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80-81);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xiii, xiv;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 텍스트가 고대 사회문화적 콘텍스트 내에서 쓰인 것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강조한다(M. Silva,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7], 14). 성경 본문은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회적 정

서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먼저 탐구할 것이다.⁶⁾

그런데 그것과 병행하여, 고린도교회의 사회-문화적 모체(matrix)가 되는 1세기 고린도 시(市)의 사회-문화적 배경 역시 탐구하여야 바울이 고린도서신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⁷⁾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 고린도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였던 특별한 문제점들을 그 당시 고린도 시의 일반적인 정황과 관련시켜 그의 독자들에게 편지하였기 때문이다.⁸⁾ 다른 말로, 바울서신의 특이함은 바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탐구할 때 드러나고,⁹⁾ 고린도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한 특별한 문제점들은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추적할 때 나타난다.¹⁰⁾ 즉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은 1세기 고린도 시의 일반성을 그 배경으로 한다.¹¹⁾

보를 알려 주고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Longman,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69).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 텍스트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회 역사에 관한 문학, 다시 말해 어떤 사회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특별한 해석으로 나타난다(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86-87). 사회 역사적 해석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역사적 해석은 성경 본문의 해석에 어떤 종류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Silva,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14-16).

6)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성경과 신학』 37 (2005), 451-77.

7)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xv.

8) T. Engberg-Pedersen, “The Gospel and Social Practice according to 1 Corinthians,” NTS 33 (1987), 557-84.

9) J. K. Chow, *Patronage and Power: A Study of Social Networks in Corinth*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9; E. A. Judge,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Som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Ideas of Social Obligation*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7-77.

10) J. H. Elliott, *What is Social-Scientific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55-57, 97.

11) Elliott, *What is Social-Scientific Criticism?*, 56-57, 97.

2.1. 고린도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고린도 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지중해에 있는 그레코-로만 (Greco-Roman) 도시들 중에서 군사, 정치, 문화, 수공업과 무역 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였다.¹²⁾ 원래 헬라 도시였지만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재미있게도 기원전 44년에 고린도 시의 중요성을 간과한 시이저의 명령으로 다시 로마식으로 재건된 도시였다.¹³⁾ 따라서 고린도 시는 로마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¹⁴⁾ 그러면서도 로마식과 헬라 문화가 결합된 이상적인 그레코-로만 도시였다.

고린도 시의 인구구성은 상층부에 로마에서 이주해온 퇴역 장성들이 있고, 중산층으로는 로마 시민 남녀와 로마 군인들이 있었으며, 하층부에는 피식민 지인인 약간의 헬라인들과 그 후손들, 전쟁포로 노예들, 그리고 제 3 세계인들로서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⁵⁾

로마의 시이저가 고린도 시를 재건할 때에 이전 헬라 도시의 전통과 색깔을 없애버리고, 로마 스타일의 고린도로 탈바꿈하려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시도하였다.¹⁶⁾ 그 대표적인 시도들이 “명예-치욕 가치관”(honor-shame value)과 “사회적 관계성과 역할”(social relationship and role)을 도시 전체에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자기 과시(self-promotion)와 시민적인 자부심(civic boasting)이 고린도 도시 전체에 편만하기를 바랐다.

12) Strabo, *The Geography of Strabo*, trans. H. L. Jones, 8 vols (London: Heinemann), 8.6.20;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9; cf. J. Murphy-O'Connor, *St. Paul's Corinth: Text and Archaeology*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3), 5-33.

13)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5-6.

14) G.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Essays on Corinth*, trans. J H Schü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99.

15)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6-7 ;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99; cf. Strabo, *The Geography*, 8.6.23; 17.3.5.

16) 참고.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99-100.

2.1.1. 명예-치욕 가치관(Honor-shame Value)

명예-치욕 가치관은 1세기 지중해 지역의 대표적인 가치관 중의 하나으로써, 고린도 시민들 사이에 만연한 가치관이었다. 그 가치관은 한마디로 “대중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public recognition)에 관심을 쏟는 것이다. 자아 성찰보다는 대중 혹은 집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가치관이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문화에서 어떤 개인이나 사회의 성취는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¹⁷⁾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명예”란 대중이 공적으로 수용할만한 사회적 행동을 개인이나 집단이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¹⁸⁾ 명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생적 명예”요 다른 하나는 “성취적 명예”이다. 자생적 명예는 날 때부터 얻게 되는 명예요 성취적 명예는 사회적 게임을 통해 얻게 되는 명예로써, 전자보다는 후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적 명예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사회적 게임을 통해 오직 승자만이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성취적 명예”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성취적 명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인 “도전과 응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게임”을 통해서 오직 승자만이 명예를 얻었다.²⁰⁾

도전과 응전 게임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17)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8; 참고. Dio Chrysostom, 5 vols, trans.

J. W. Cohoon and H. L. Crosby (London: Heinemann), 8.6-7.

18) B. J.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25-50.

19)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29-33.

20)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29-30; Malina and J. Neyrey, “Honor and Shame in Luke-Acts: Pivotal Values of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Social World of Luke-Acts: Model for Interpretation*, ed. J. Neyrey (Peabody, MA: Hendrickson, 1991), 28-29.

중요한 요건은 도전자와 응전(應戰)자의 자격이 동등해야 함으로 도전자는 이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²¹⁾ 두 번째 요건은 응전자가 도전자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거절(경멸, 조소 등)하든 아니면 승인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 무반응이나 응전의 실패는 치욕(shame)을 낳는다.²²⁾ 세 번째로 대중을 통한 공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도전자나 응전자가 명예를 얻느냐 잃느냐 하는 것은 오직 대중의 판결에 달려 있었고, 그 평가는 도전자나 응전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파멸에 몰아 놓을 수도 있었다.

2.1.2. 사회적 관계성과 역할(Social Relationship and Role)

고린도 시에는 1세기 당시 그레꼬-로만 사회에 존재하였던 사회적 관계성이 그대로 존재하였으니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다. 즉 강자와 약자, 상류층과 하류층, 부자와 가난한 자, 시혜(施惠)자와 수혜자, 기득권자와 비 기득권자이다. 이 두 계층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였다. 이 고린도 시의 사회적 관계성은 고린도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그 두 계층의 사회적 관계성과 역할이 고린도교회 공동체 존립과 화합에 변수가 되었다.²³⁾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성과 역할”은 “명예-치욕 가치관”과 더불어(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고린도 도시 뿐 아니라, 고린도교회 공동체 존립과 화합에 주요 변수 역할을 하였다.

타이센(G. Theissen)은 고린도교회 내에 힘 있는 소수로서, 고린도 사회의 상류 계급에 속하는 부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²⁴⁾ 고린도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사회적 상류 계층인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우(J. K. Chow)는 고린도 시와 고린도교회

21) Malina and Neyrey, “Honor and Shame in Luke-Acts,” 30-31.

22) Malina and Neyrey, “Honor and Shame in Luke-Acts,” 31.

23)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27-54; R. Scroggs,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NTS* 26 (1980), 174.

24)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69-119.

의 사회적 관계성과 역할을 후원자의 관계성과 역할로 보았다. 그런데 이 관계는 불평등의 관계요, 수직 관계로써, 후원자는 물질을 제공하고 수혜자는 복종과 섬김을 제공하는 거래 관계였다.²⁵⁾ 초우는 이 후원자의 관계성이야말로 고린도교회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²⁶⁾ 마샬(P. Marshall)은 선물을 주고받는 자 사이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그레꼬로만 사회에서 관계성의 실패는 선물 교환의 실패 탓이라고 강조하였다.²⁷⁾ 마샬에 따르면, 선물을 거절하게 되면 적이 되고 선물을 호의적으로 받음으로 친구가 되는데²⁸⁾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답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신호인데, 이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할 수 없으면 평등한 친구 관계는 깨어지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²⁹⁾ 이상 세 학자(타이센, 초우 그리고 마샬)의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는데, 필자는 고린도교회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이 세 학자의 이론들을 참고할 것이다.

2.2. 고린도교회의 사회적 구조와 문제점

2.2.1. 힘있는 소수와 힘없는 다수의 갈등

고전 1:11-12 바울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11 ἔδελώθη γάρ μοι περὶ ὑμῶν, ἀδελφοί μου, ὑπὸ τῶν Χλόης ὅτι

25) Chow, *Patronage and Power*, 31-41.

26) Chow, *Patronage and Power*, 32-40.

27) P. Marshall, *Enmity in Corinth: Social Conventions in Pauls Relations with the Corinthians* (Tübingen: Mohr, 1987), 1-67.

28) Marshall, *Enmity in Corinth*, 1-32.

29) Marshall, *Enmity in Corinth*, 1-21.

ἔριδες ἐν ὑμῖν εἰσιν.

12 λέγω δὲ τοῦτο ὅτι ἕκαστος ὑμῶν λέγει, Ἐγὼ μὲν εἰμι Παῦλου,
Ἐγὼ δὲ Ἀπολλῶ, Ἐγὼ δὲ Κηφᾶ, Ἐγὼ δὲ Χριστοῦ.

글로에의 편으로 바울에게 전하여 온 소식은 고린도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지만, 사실은 기득권 싸움을 하는 힘 있는 소수들의 파워게임이다.³⁰⁾ 아마 바울파는 바울이 세례를 주고 신임하였던 바울의 후원자요 추종자였던 스테바나(1:16; 16:17), 가이오(1:14) 그리고 그리스보(1:14) 등이었을 것이다.³¹⁾ 어떤 학자들은 헬라적 기독교인 바울파와 유대적 기독교인 베드로파라고도 주장하나 근거가 희박하다.³²⁾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 베드로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입지와 세속적인 영향력을 교회 공동체 내에 구축하기 위해 자기들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무시한다.³³⁾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점을 글로에 집 편(1:11)의 하인들이 바울을 찾아와

30) L. L. Welborn, "On the Discord in Corinth: 1 Corinth: 1 Corinthians 1-4 and Ancient Politics," *JBL* 106/1 (1987), 89; J. Calvin, *The Calvin Commentary*,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울: 성서원, 1999), 52-53; 11절에 나오는 ἔριδες와 10절의 σχίσματα 그리고 13절의 μερίζειν 헬라어 단어들은 분쟁과 나눔을 의미하는 정치적인 용어이다(Mitchell, *Paul and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87). 그런데 11절의 ἔριδες는 분열 그 자체를 가리키는 σχίσματα 보다 한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다툼" 혹은 "논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6], 75,78).

31) S.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62.

32)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462.

33) 일인칭 주격대명사 ἐγὼ를 네 번에 걸쳐 계속 사용한 것은 그들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도들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완고하게 되풀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76).

실토하였을 것이다. 글로에는 해방된 노예로 바울에게 전도되어 회심한 여자 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³⁴⁾ 그리고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그녀의 하인들(τῶν Κλήσις)이 그들의 고민과 불만을 호소하고자 바울에게 찾아왔을 것이다.³⁵⁾ 물론 스테바나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후에 바울은 이 문제를 스테바나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전 1:26-29 힘있는 소수와 힘없는 다수

26 ζλέπετε γὰρ τὴν κλήσιν ὑμῶν, ἀδελφοί, ὅτι οὐ πολλοὶ σοφοὶ κατὰ σάρκα, οὐ πολλοὶ δυνατοὶ οὐ πολλοὶ εὐγενεῖς
 27 ἀλλὰ τὰ μωρὰ τοῦ κόσμου ἐξελέξατο ὁ Θεός, ἵνα κατασχῶν τὸς σοφοὺς, καὶ τὰ ἀσθενῆ τοῦ κόσμου ἐξελέξατο ὁ Θεός, ἵνα κατασχῶν τὰ ἰσχυρά
 28 καὶ τὰ ἀγενῆ τοῦ κόσμου καὶ τὰ ἐξουθενημένα ἐξελέξατο ὁ Θεός, τὰμὴ ὄντα, ἵνα τὰ ὄντα καταργήσῃ
 29 ὅπως μὴ καυχῆ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과 분열³⁶⁾을 파악한 바울은 그 공동체내의 힘 있는 소수의 전략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분고하, 사회적 지위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음(κλήσιν)을 강조한다(롬 11:29; 엡 1:18).³⁷⁾

34)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54.

35) 강병도(편), 『고린도전서 1-16장』 카리스종합주석 17 (서울: 기독교출판사, 2003), 96.

36) 바울이 10절의 οχίσματα(분쟁)와 11절의 ἔριδες(분쟁)의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분쟁과 다툼이 오직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다툼과 분쟁임을 의미한다(권성수, 『고린도전서 1』 [서울: 햇불, 2000], 137). 고린도교회 공동체는 아직 완전한 과당을 한 것은 아니라 갈등의 골이 깊어 분열의 위기가 있는 상태이다.

37) 강병도(편), 『고린도전서 1-16장』, 107.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상태와 관계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가난하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노예나 하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³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οὐ πολλοί),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οὐ πολλοί),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οὐ πολλοί).”(26절).³⁹⁾ 바울이 “많지 아니하다”(οὐ πολλοί)라는 표현을 한 것은 소수는 지혜롭고(σοφοί), 능력이 있으며(δυνατοί), 문벌이 좋다(εὐγενεῖς)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지혜와 능력과 문벌은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속적 평가기준이었다.⁴⁰⁾ 클라크(Clarke)의 주장⁴¹⁾에 의하면, 1장 26절에 나오는 “οὐ πολλοὶ σοφοί,.....οὐ πολλοὶ δυνατοί,.....οὐ πολλοὶ εὐγενεῖς”와 같은 비유적인 언어는 당시 그레코-로만 상류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바울이 그 용어를 1장 26절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 그레코로

38)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69-73, 125-29; D. G.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Interests and Ideology from 1 Corinthians to 1 Clement* (Edinburgh: T & T Clark, 1996), 98.

39) 험릿 보면, 고전 1:26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다수로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 보이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 내의 “힘 있는 소수”(a dominant minority)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70). 바울은 “의도된 독자들(intended readers)로서 고린도교회 내에 약간(some)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 부와 지위를 누리는 상류 부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바렛(C. K. Barrett)은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수가 아니라(not many) 소수(a few)는 돈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업에서나 시의회 등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지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도 자신의 집을 제공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Barrett, *Church, Ministry, and Sacraments in the New Testament*, 37.).

40) 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121.

41) 바울은 이러한 종류의 용어들(예를 들면, “지혜”와 “부”)을 고전 1-6장에서 계속 사용한다(A. D. Clarke, *Secular and Christian leadership in Corinth: A Socio-historical and Exegetical Study of 1 Corinthians* [Leiden: E. J. Brill, 1993], 45, 56-57).; 참고. B. W. Winter, *Philo and Paul among the Soph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7), 184-94.

만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성도들이 소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다.⁴²⁾

즉 고린도교회 내의 소수(minority)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부와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류계급임을 암시한다.⁴³⁾ 그 힘 있는 소수는 사회적 힘과 부(富)를 이용하여 교회 내에서 다방면으로 세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였다.⁴⁴⁾ 그들은 일반 사회에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그대로 교회 내에서 행하려 하므로 바울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⁴⁵⁾

1장 26절 이하에서 문제의 진원지인 힘있는 소수를 향해 바울은 책망을 시작한다(지혜, 능한 자, 문벌). 하나님의 선택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다. “선택하다”(ἐξελέξατο)라는 부정과거 중간태 헬라이어 동사가 27-28절에 3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선택한 것이며(참고 신 7:7),⁴⁶⁾ 그 선택은

42) 클라크(A. D. Clarke)는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 로마사회의 상류층이었던 힘 있는 소수, 예를 들면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특별히 에라스도의 고린도비문 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헬라-로마 시대에 다른 문학가들에 의해 사용된 유사한 용어들을 언급한다(Clarke, *Secular and Christian leadership in Corinth*, 41-57). 클라크의 연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내에 헬라-로마사회의 상류계급이 소수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외적-증거로써 매우 중요하다.

43) Clarke, *Secular and Christian leadership in Corinth*, 42, 45, 57; Winter, *Philo and Paul among the Sophist*, 191;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70-73;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95, 98; B. Fiore, “Covert Allusion in 1 Corinthians 1-4,” *CBQ* 47/1 (1985), 95; C. K. Barrett, *Church, Ministry, and Sacraments in the New Testament*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85), 37.

44)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69-73, 125-29;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98-101, 156;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22-24.

45)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56; J. M. G. Barclay, “Thessalonica and Corinth: Social Contrasts in Pauline Christianit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Methods* ed. S. E. Porter and C. A. Ev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86.

46) 바울은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가 행위의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중간태를 사용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⁴⁷⁾ 고린도전서 7:21에서는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최 하류층인 노예들⁴⁸⁾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다(δοῦλος ἐκλήθης, μή σοι μελέτω). 바울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그들 편에 서서 힘 있는 소수를 책망하고 있다(1:27-28; 11:22);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μωρά) **약한 것들**(ἀσθενῆ) **천한 것들**(ἀγενῆ) **떨시받는 것들**(ἐξουθενημένα)을 택하시(1:27-28); 너희가 **빈궁한 자들**(τοὺς μὴ ἔχοντας)을 부끄럽게 하느냐(11:22)?” 바울은 이 구절(27-28절)에서 지혜를 뺏내며 능력과 문벌을 자랑하는 힘 있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려고⁴⁹⁾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밝힌다.⁵⁰⁾ 더 나아가서 28절에서는 아예 “폐하려 한다”(καταργίση)는 가정법 동사를 사용함으로 종말론적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⁵¹⁾ 또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음을 강조한다. 26-2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 29절에 잘 나타난다 (강병도(편), 『고린도전서 1-16장』, 107-08; 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122, 124).

47)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62.

48) 헬라-로마 사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예(*servi*), 자유민(*liberti*), 자유출생인(*ingenui*)인데 이 세 부류 중 노예들 특히 시골 노예들이 가장 낮은 신분의 소유자들이었다(D. B. Martin, *Slavery as Salvation: The Metaphor of Slavery in Pauline Christiani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1-49;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66-68). 고전 7:21에서 노예 신분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처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위로했다는 것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힘없는 다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32.).

49) 27절의 “부끄럽게 하다”(κατασχόνη)라는 동사는 가정법 현재능동태로써 앞의 접속사 ἵνα와 함께 목적절을 이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힘과 지위를 뺏내고 자랑하는 힘 있는 소수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다.

50) 권성수, 『고린도전서 1』, 196.

51) 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124.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문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6-29절의 선언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힘 있는 소수의 교만과 기세를 꺾으려 시도한다.

2.2.2. 힘 있는 소수와 바울의 갈등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힘있는 소수와 힘없는 다수의 갈등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과 힘 있는 소수와 의 갈등이다. 왜냐하면 힘없는 다수는 힘있는 소수에게 맹목적이면서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머피-오코너(Murphy-O'connor)에 따르면, 당시의 고린도교회는 가정교회로써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 정도로 본다.⁵²⁾ 이러한 가정교회 상황에서 힘있는 소수의 말과 행동은 힘없는 다수를 누르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바울은 힘없는 다수의 대표요 대변인이 되어 힘있는 소수의 세속적 영향력과 횡포를 저지해야만 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원리 중의 하나이다.⁵³⁾ 그리하여 바울은 힘없는 다수의 수호자요 대변인으로서, 세속적인 영향력과 힘으로 다수를 누르고 다수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좌지우지 하려는 힘있는 소수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투쟁한다. 또한 힘있는 소수는 서로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연합하면서 바울을 대적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있는 소수를 우선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야 고린도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갈등의 문제를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2) Murphy-O'connor, *St. Paul's Corinth*, 153-61.

53) 바울은 롬 5:12-21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불순종”과 “순종”의 대표로, 그로 인해 아담은 “사망이 왕 노릇”하게 하는 대표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대표가 된 것으로 보았다.

3.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주요 분류와 갈등 문제

바울과 힘있는 소수의 힘겨루기⁵⁴⁾가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류⁵⁵⁾의 근원적인 주요 문제점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난 주요 분류와 갈등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겉으로 드러난 다양한 갈등은 바울과 힘있는 소수와의 갈등이요 분쟁이며, 고린도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위기이기도 하다.

3.1. 교회 장소제공 문제

일반적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교회는 가정교회로써, 고린도 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6:19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정교회에 대해

54) 바울은 고린도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의 근본원인을 바울 자신의 권위에 대한 힘 있는 소수의 도 전으로 보았다(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8-49, 155-57).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훌륭한 연사(orator)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가게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는 자였다(고전 4:12, “κοπιῶμεν ἐργαζόμενοι ταῖς ἰδίαις χερσίν”).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울을 그들은 못 마땅히 여겼다(참고. 행 18:1-2;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19-20; R. F. Hock,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Tentmaking and Apostleship*. [Philadelphia: Fortress, 1980], 67).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사례비를 단호히 거절하는(고전 9:12, 15) 바울의 처신과 행동에 그들은 격분하였다(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200-216).

55) 고린도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있었으나(고전 6:10-11; 8:7; 12:2),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점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내재하였다(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28).

분명히 밝히고 있다(σὺν τῇ κατ' οἶκον αὐτῶν ἐκκλησίᾳ) (참고 롬 16:5).

교회 장소로 집을 제공할 경우, 아마 힘있는 소수가 자신들의 큰(μέγας) 집을 예배와 교제를 위해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⁵⁶⁾ 바울이 성만찬을 시행하기 전에 음식 먹는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책망하였는데 (고전 11:17-18), 그때 바울이 언급한 교회는 가정 교회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συνέρχεσθε).....(17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συνερχομένων)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18절).....너희가 함께 모여서(συνερχομένων)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20절).”⁵⁷⁾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예배 장소로 인한 갈등이었으니, 어떤 집주인은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하인처럼 대할 때도 있었고,⁵⁸⁾ 또 어떤 집주인은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음료, 기타 선물 등을 제공하면서 고린도 사회에서 행하였던 세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였다.⁵⁹⁾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이 가정교회의 예배와 교제 처소로 자신들의 집을 제공함으로 야기되는 갈등의 골은 깊었다. 그 주된 원인은 힘있는 소수에게 있었으니,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 줄 몰랐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횡포를 일삼았다. 그로인해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⁶⁰⁾ 이런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의 세속적인 행동과 태도를 책망하면서 “젓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버리라고 경고였다(고전 3:1-3).

56)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22.

57)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87.

58)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30.

59) Marshall, *Enmity in Corinth*, 135.

60) Welborn, “On the Discord in Corinth,” 89;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56;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13, 115.

3.2. 음식 문제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 소수의 힘있는 부자와 가난하고 힘없는 다수는 두 가지 면에서 음식 문제로 갈등과 분쟁을 하고 있다. 첫째는 애찬이요, 둘째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것이다.

3.2.1. 애찬(love feasts)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은 음식을 따로 먹음으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다.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은 자신의 큰 집을 교회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애찬(愛餐)”이라고 부르는 음식을 다른 시간에 다른 방에서 먹었다(고전 11:21-22).⁶¹⁾ 자신들은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으므로 가난한 성도들을 모욕하고 차별하였다.⁶²⁾

힘있는 부자는 자신이 “초청인”(host)이 되어 다른 부자 성도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함께 초청한 후(고전 11:22), 부자들에게는 특별한 식사와 장소를 제공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했다.⁶³⁾ 그와 같은 초청인의 무례한 행동은 당시 그레꼬로만

61)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Essays on Corinth*, 157-6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02-105;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390.

62) 고전 11:21에 나오는 προλαμβάνει(프로람바네이)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 전에 먼저 먹는다.”라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교회 내의 힘 있는 소수는 가난하고 비천한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 없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게 되었고, 힘없는 다수는 허기진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ὁς μὲν πεινᾷ, ὁς δὲ μεθύει)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151, 153;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02; S. C. Barton, “Paul’s Sense of Plac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Community Formation in Corinth,” *NTS* 32 (1986), 234-42; 참고. Pliny, *Epistulae*, 2 vols, trans. W. Melmoth (London: Heinemann), 2.6.

63)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157-6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사회에 만연(蔓延)하였던 악습⁶⁴인데 이런 세속적 관습을 힘있는 소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버젓이 자행하였다.

원래 애찬(love feasts)은 오순절 이후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에 의해 널리 시행된 아름다운 식사교제였다.⁶⁵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징표로 애찬을 적극 실천한 것이다(행 2:42, 46). 그 후로 애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인증(hallmark)같이 되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시행되었다(행 20:7, 11).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애찬을 시행하였을 것이다.⁶⁶ 그러나 고린도교회에서 시행된 애찬은 남용되므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02-105.

- 64) 플리니(Pliny)는 식사에 대한 당시 헬라-로마 사회의 문화적 관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주 비싸고 우아한 접시들이 초청인과 그의 가까운 소수의 친구들에게 제공된다. 그에 비해 나머지 사람들의 식탁에는 값싸고 천한 그릇들이 놓여진다. 초청인은 조그만 와인 잔들에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와인을 부어 맞본다. 그러나 손님들이 선택할 여지는 없다. 먼저 주인이 맛보고 다음은 신분과 친분의 순서에 따라 그의 친구들이 맞본다 (Pliny, *Epistulae*, 2.6).
- 65) 애찬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유월절 식사의 배경에서 유래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다락방에서 가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셨다: “주님은 떡을 집었다(ἔλαβεν),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εὐχαριστίας), 그리고 그것을 떼었다(ἔκλασεν). 식사 후에 잔을 들었다.” 그 주요 동사들(ἔλαβεν, εὐχαριστίας, ἔκλασεν)은 모두 반복적인 행동을 요약적으로 묘사하는 부정과거 동사이다. 헬라어 문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식사 때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B. B. Thurston, “Do This’: A Study on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Restoration Quarterly* 30/4 [1988], 213).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애찬과 성만찬은 역동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만찬의 요소들은 애찬 그것자체로부터 직접 왔음을 알 수 있다(J. T. Coyle, “The Agape/Eucharist Relationship in 1 Corinthians 11,” *Grace Theological Journal* 6/2 [1985], 415).
- 66) 바울이 애찬을 고린도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단지 애찬 시행의 폐단을 지적하고 경고하기를 원했다(Coyle, “The Agape/Eucharist Relationship,” 416). 애찬(愛餐)의 적극 시행은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조이다. 그들은 사랑의 표지(hallmark)로 애찬을 적극 실행하였다(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다(고전 11:17-22, 33-34).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 식사에서 유래하여, 초대 예루살렘교회에서 사랑의 인증으로 적극 활용되었던 애찬은 중단되었다.⁶⁷⁾ 애찬 시행의 폐단 때문이었다. 애찬 시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부자와 가난한 자,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에 갈등과 분쟁만 일어났기 때문이다.⁶⁸⁾

3.2.2.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힘있는 소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거침없이 먹을 뿐(고전 8:4, 9-10; 10:25-28)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에 자유롭게 참석하였다(고전 8:1; 10:14-22).⁶⁹⁾ 그들의 그 자유분방한 태도는 그들의 지식(γνώσις)에 근거한 것 같다(고전 8:10, 11).⁷⁰⁾ 힘있는 소수는 자신들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교만하여졌

Corinthians, 390). 사도행전 2:42, 46과 20:7-11에 나오는 “떡을 떤다”는 표현은 애찬을 의미하는 신약에 나오는 일종의 기술적 표현이다 (Coyle, “The Agape/Eucharist Relationship,” 417-18). 유다서 12절에도 “ἀγάπαις”(애찬)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다는, 고전 11:17-22에서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애찬 나눔의 해약에 대해 경고한다.

67) 바울은 애찬을 중지하고 대신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더욱 활성화하므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화목과 일치를 가져오려 하였다. 고대 교회 이후에 카르타고(Carthago) 공회는 애찬을 아주 폐지시켜 버렸다(박윤선, 『고린도전서』 [서울: 영음사, 1985]).

68) D. Farner, “The Lord’s Supper Until He Comes,” *Grace Theological Journal* 6 (1985), 395-96.

69) 타이슨(G. Theissen)은 주장하기를, 고린도교회 힘있는 다수는 사회적 약자로서 일상 생활에서 고기를 먹을 기회가 흔치 않았으나, 힘 있는 소수는 저녁식사를 동반한 종교적 향연(饗宴)에 일상적으로 참석하여 고기 먹는데 익숙하여 있다는 것이다(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125-29). 바울은 이와 같이 종교적 향연에 자유로이 참석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침없이 먹는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고전 8:9-1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05-106).

70) R. A. Horsley, “Gnosis in Corinth: 1 Corinthians 8:1-6,” *NTS* 27 (1981), 45.

다(고전 8:1; πάντες γινῶσιν ἔχομεν).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신(神)이란 존재하지 않는다.”(οὐδὲν εἶδωλον ἐν κόσμῳ. οὐδεὶς Θεὸς εἰ μὴ εἴς).”(고전 8:4)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신전제사에 마음껏 참석하여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권리”(ἐξουσία)가 있다고 믿었다.⁷¹⁾ 그래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우상 신전제사에 참석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자유를 누렸다. “권리”(ἐξουσία)라는 말과 “자유”(ἐλευθερία)라는 용어는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에게 슬로건과 같은 용어들이었다(고전 8:9; 10:23).

힘있는 소수의 거침없는 권리행사와 자유분방한 태도에 바울은 제동을 걸었다. 바울은 그들의 자유가 약한 자들⁷²⁾을 실족(πρόσκομμ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고전 8:9-10). 더 나아가 그들의 거침없는 행동이 약한 자들을 죄짓게 할 수 있다고 책망하였다(고전 8:10, 13; 10:28). 바울은 약한 자들의 믿음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하여 탐욕을 채우는 힘 있는 소수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ἀπόλλυται ὁ ἀσθενῶν ἐν τῇ σῆ γνώσει, 고전 8:11). 더 나아가, 바울은 힘있는 소수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바랐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ἡ γνῶσις φουσιῶ, ἡ δὲ ἀγάπη οἰκοδομεῖ; μηδεὶς τὸ εαυ-τοῦ ζητεῖτω ἀλλὰ τὸ τοῦ ἐτέρου, 고전 8:1; 10:24).

7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06.

72)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한 자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할 뿐 아니라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72-77; Barret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215),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 한다(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125; Martin, *Slavery as Salvation*, 118-20; Chow, *Patronage and Power*, 145-57).

3.3. 재판 문제

고린도전서 6:1-8에서 다루는 재판은 주로 민사재판을 의미한다. 민사재판을 주도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며 부자인 힘있는 소수들이다. 그들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하류층인 성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을 것이다. 당시 로마 법적 제도의 편견 때문에 고린도시의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부(富)와 사회적 힘을 지닌 상류층에 속한 자들이었다.⁷³⁾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자유민들은 후원자들을 고소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상류 계급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고소할 수 없었다.⁷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린도교회 내의 힘있는 소수는 자신들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다.⁷⁵⁾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6장 1절에서 $\tau\omicron\lambda\mu\acute{\iota}\alpha$ (구태어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힘있는 소수의 횡포를 책망하고

73) 저스틴(Justinian)은 그의 저서 *Digest*에서 로마의 법적 제도의 편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집정관, 장관, 최고 행정관, 지방 총독, 혹은 치안 판사등이 법정에 소환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최고 행정관은 말하기를, “아무도 나의 허락 없이는 부모, 후원자들을 법정에 소환할 수 없다. 더욱이 부모나 후원자들에 대적하여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식들이나 자유민이 고소할 수 없다. 또한 낮은 신분의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대항하여, 예를 들면, 평민이 집정관에 대항하여 고소할 수 없다. (*Digest* 2.4.2, 4; 4.3.11.1.)

클락(Clarke)에 따르면, 위의 편견들과 같은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6:1-8에 나타난 믿는 자들 사이의 법정 소송문제들은 사회적 상류 계층으로서의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이 주도했음에 틀림없다(Clarke, *Secular and Christian leadership in Corinth*, 68-71).

74) Justinian, *Digest* 2.4.2, 4; 4.3.11.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11; B. W. Winter, “Civil litigation in secular Corinth & the Church: The Forensic Background to 1 Corinthians 6:1-8,” in *Understanding Paul’s Ethics: Twentieth Century Approaches*, ed. B. S. Rosner (Grand Rapids: Eerdmans, [1991] 1995), 88; P. Garnsey, *Social Status and Legal Privilege in the Roman Empire*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0), 216-18; J. M. Kelly, *Roman Litigati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6), 62.

75)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11, 137.

있다.⁷⁶⁾ 바울은 힘있는 소수의 소송사건에 대해 1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즉 일반 법정에서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πρᾶγμα)이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ἀδίκων)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κρίνεσθαι)하고 성도들(ἀγίων)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어서 바울은 2-3절에서 수사의문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οὐκ οἴδατε ὅτι)를 사용하여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반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세상을 심판할 뿐 아니라, 천사들조차 심판할 심판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2-3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하니 즉, 세상적인 이권과 분쟁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4-6에서 민사재판에 소송을 한 힘있는 소수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다. 왜냐하면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에게서 변상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재판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⁷⁷⁾ 만약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그것이 신앙인들로서 부끄러운 행동인 것으로 교회에서 판가름 났다면,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불신자들(ἀπίστων) 앞에서 재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⁷⁸⁾

76) τοῦμᾶ(톨마, 구태여 네가~수 있느냐?)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논쟁을 함의하는 동사이다(A. Robertson and A.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 & T Clark, 1911], 110).

77)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1.

78) 고전 6:5-6;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1-42; 윈터(B. W. Winter)에 따르면, 바울은 세속의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사회적 상류 계급이 누리는 혜택으로 가득 차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세속의 재판장들은 사회제도와 관습에 매우 익숙한 불공정한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참고. Kelly, *Roman litigation*, 31-42). 바울은 세속의 재판장들을 불공정한 자들(τῶν ἀδίκων)이요, 불신자들(ἀπίστων)로 단정하면서 이런 재판관들 앞에 성도들이 소송 문제로서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특히 고전 6:1, 6을 보라). 바울이 “재판장”, “불공정한 자”, 그리고 “불신자들”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은 고린도교회 안에 상류 계급으로서

성도들 간의 법정소송문제에 대해 바울은 6장 7-8절에서 수사의문문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힘있는 소수가 가진 자로서 배려와 아량을 베풀어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가르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διὰ τί οὐχὶ μᾶλλον ἄδικεῖσθε, διὰ τί οὐχὶ μᾶλλον ἀποστερεῖσθε;)⁷⁹⁾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세속 법정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던 힘 있는 소수를 바울이 책망하며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훈계하자(7절), 그들은 몹시 당혹해하며 분노하였을 것이다(8절).⁸⁰⁾ 그런 의미에서 법정소송 사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적 가치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로마 시민법과 사회적 가치체계에 길들여져 있는 힘있는 소수로서는 바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¹⁾

3.4. 사례비 문제

바울은 사도의 직임을 신앙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로부터 사례나 선물받기를 거절하였는데,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⁸²⁾ 그들은 사회적 우월자로서 바울에게 선물을 하고 사례를 지불하므로 바울을 자신들의 세속적 영향력 하에 두기를 원했다. 그러한 사실을 간파한 바울은 그들의 사례와 선물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의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 힘 있는 소수의 부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보다 세속적 사회제도에 더 익숙하고 로마의 법 제도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Winter, “Civil litigation in secular Corinth & the Church,” 89-94).

79)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2.

80)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1-42.

81)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2.

82) 고전 9:12, 15 ; Judge,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3-24 ; Chow, *Patronage and Power*, 83-112 ; Marshall, *Enmity in Corinth*, 1-129.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과 영향력이 고린도교회 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⁸³⁾ 바울은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의 세속적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좌절시키려고 애썼다.⁸⁴⁾ 바울은 ἐξουσία(엑수시아, 권리)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고전 9:12, 15, 18),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ἐξουσία가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와 고통이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힘과 권리를 당연히 절제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⁸⁵⁾ 바울의 이 전략이 탄력을 받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ἐξουσία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고전 9:12하, 15, 19-23; 10:23-24, 33하). 물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고린도교회에게서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ἐξουσία가 있지만(고전 9:3-12상, 13-14),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ἐξουσία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이라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πᾶσιν ἑμαυτὸν ἐδούλωσα”)고 선언한다(고전 9:19). 바울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 고린도교회 내의 힘있는 소수가 자신의 행동과 삶을 본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세속적 권위와 영향력을 고린도교회 내에서 좌절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랐다.⁸⁶⁾

83) 타이센(Theissen)은 바울이 교회 내의 사회적 차이점과 신분을 용납하는 타협의 “에토스(ethos)”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69-119).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바울은 타협의 에토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힘있는 소수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고(고전 9:12, 15),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고전 4:12),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스스로 낮춤으로써 힘있는 소수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 차별화를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권하고 있다(고전 4:16; 11:1) (참고.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200-16, 228-30, 233-36; 고전 1:27-28; 4:9-21; 5:13; 6:7; 7:29-31; 8:13; 9:19; 11:22; 15:58; Judge,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191-203; Engberg-Pedersen, “The gospel and social practice according to 1 Corinthians,” 557-84.

84) Chow, *Patronage and Power*, 113-90; Marshall, *Enmity in Corinth*, 143-47.

85)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4.

4. 한국교회의 문제점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고린도교회의 문제점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소수의 지도자들의 파워게임을 통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과당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리더십의 위기를 통해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고린도교회 소수의 리더들이 고린도 도시의 세속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확장시켰듯이, 한국교회내의 소수의 리더들의 세속화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세속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1세기 고린도교회의 문제점과 비교해 볼 때, 그 정황과 여건 면에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3장에서 언급한 고린도교회의 4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비교 적용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때로는 선별적으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비교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4.1. 성장지상주의

고린도교회의 힘있는 소수가 자신들의 “큰 집”을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제공하였을 때(3.1.), 그들은 자신들의 큰 집과 장소를 과시하고 자랑하였을 것이다. 힘있는 소수는 그 자만심과 과시욕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하인처럼 대하였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음료, 기타 선물 등을 제공하면서 고린도 사회에서 행하였던 세속적인 영향력을

86) Horrell,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142; Martin, *Slavery as Salvation*, 128-29.

그대로 교회에서 발휘하려 하였다. 종말에 세속사회의 특징은 “큰(μέγας)”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탄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벨론성은 “큰 바벨론”(ἡ μεγάλη βαβυλών)이다⁸⁷⁾.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고린도교회의 힘있는 소수처럼, 큰 것을 좋아하고 대형교회를 지향한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무리를 해서라도)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적 성장을 하려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큰 것 선호(選好), 대형 애호심이 “성장지상주의”를 가져왔다.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성장지상주의가 한국교회에 심각한 리더십 위기를 가져왔다.⁸⁸⁾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다는 식의 교회성장지상주의가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새로운 담임목사도 부임하여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면 훌륭한(?) 목사로 대접받지만,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게 되면 실직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여기에서 담임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다.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리더십의 위기 중의 하나이다.

각 교회마다 성장을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몰입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대개가 실용주의적 소비자 중심의 인본주의적 산물들에 불과하다.⁸⁹⁾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과 방법을 무시하고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은 상실되고 목사와 장로들 간에 갈등과 알력과 분쟁이 있게 된다.

87) 계 14:8; 16:19; 17:5, 18; 18:2, 10.

88) G. Kang, “Church Leadership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D. Th. dis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2), 7-8.

89) 이종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기: 대한신대원출판부, 2010), 142.

4.2. 세속주의 리더십

바울은 담임목사로서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의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로부터 사례나 선물받기를 거절하였다(3.4).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물질로 자신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주는 사례비와 선물을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과 영향력이 고린도교회 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바울은 힘있는 소수가 사용하는 권리(ἐξουσία)가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에게 장애와 고통이 된다면, 그들의 힘과 권리를 당연히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몸소 자신의 권리(ἐξουσία)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전 9:12하, 15, 19-23; 10:23-24, 33하). 바울은 그 선언과 실천을 통해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힘있는 소수의 세속적 권위와 영향력을 좌절시키려 하였다. 또한 힘있는 소수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에 비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바울의 삶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세속주의 리더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학술세미나에서 김영한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세속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⁹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유해진 교회는 이웃에 대한 선교보다 교회 자체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일부 교회목사들에게서는 청빈이나 가난의 모습은 찾기 힘들 정도이다. 교회 내부에서 변형된 형태의 성직 매매, 변형된 세습이 횡행하고, 원로 후임 간의 주도권 투쟁이 심각한 실정이다. 교회의 직분들(총회장, 노회장, 지방회장, 당회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은 오늘날 계급 내지 명예의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90) 김영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한국교회 개혁,” 종교개혁학술세미나 (2017), 5.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대중의 인기와 세속적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며 서로 기득권과 명예를 위해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다. 그들은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과 백성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주변의 빈민촌, 탈북자들, 기타 여러 가지 사회악에 희생되고 억압받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⁹¹⁾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마 25:31-46). 오직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외형적이고 물량적으로 확장하고 교세를 확장시켜, 자신들의 세속적 영향력과 부(富)와 명예를 축적하는 데에 있다.⁹²⁾

아울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에 물들어 있다.⁹³⁾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대중성과 실용성에 목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고린도사회의 명예-치욕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대중의 관심과 욕구 그리고 호응도에 자신의 명예와 가치가 전적으로 달렸다고 생각하는 명예-치욕 가치관을 닮았다. 그들의 메시지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중을 즐겁게 하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다.⁹⁴⁾

4.3. 기복사상과 샤머니즘

고린도 시(市)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처럼 한국교회에도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인한 기복사상과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다. 고린도교회의 소수의

91) 김영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한국교회 개혁,” 6.

92) 이장식, “영성과 설교,” 제 16회 기독교 학술원 영성 포럼 자료집 (2011년 11월 3일), 5.

93) 이종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7-223.

94) 이종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167-69.

힘있는 부자들이 고린도 도시의 우상숭배와 문화에 젖어 있었듯이(3.2.2.),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복사상에 젖어 성도들에게 기복사상과 사머니즘적인 요소를 부추기고 있다.⁹⁵⁾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한국인들의 “치성(致誠) 의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작정기도, 일천번제기도, 헌금, 맹목적 봉사 등을 통하여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보장하고 장수와 세속적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⁹⁶⁾ 마치 용한 무당에게 복비 두둑이 주면서 굿하고 점을 보듯, 많은 성도들이 용한 능력의 목회자나 장로에게 현세 축복과 번영의 비밀을 예언으로 보장받고 또 병 고침을 받고, 표적을 체험하려는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 성공 그리고 세상에서의 번영과 부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척도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뿌려놓은 씨의 결과이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대학입시, 공무원과 교원 시험, 취직, 결혼 등 각종 소원성취 위주의 기도회”와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예배형태를 통하여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유도하고 있다.⁹⁷⁾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뢰야교회 성도들처럼 성경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상고하는(행 17:11) 대신, 한국교회는 예배 중에 광란적인 락(Rock) 음악과 복음송이 판을 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인기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재미와 감상적인 간증에 치우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⁹⁸⁾

한국교회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설교가 빛을 잃었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저주를 받을

95) 이종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86-138.

96) 이종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88-89.

97) 김영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한국교회 개혁,” 6.

98) 김영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한국교회 개혁,” 6.

것”이라고 선언하거나, 자신은 아부나 아침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겠다(갈 1:8-10)고 공언하는 목회자들이 부족한 시대이다. 오직 번영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약속하는 설교가 난무하는 현실이다.

4.4. 권위주의적 리더십

은준관 목사는 한국교회에 거국적인 회개를 촉구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작태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⁹⁹⁾

작금의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지상주의가 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설교자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아가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의 목소리보다 커진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성경은 단지 설교자와 성경공부의 참고서로 전락해 버렸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워(authoritarianism)를 꿈꾸고 그대로 실천하려 한다. 이는 마치 고린도교회 내의 힘있는 소수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권위를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행사하려던 것과 비슷하다. 이는 마치 “뽕 잡는 새가 맴”이듯이 담임목사는 강한 리더십을 교회에 행사하여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와그너(P. Wagner)의 이론에 영향 받은 바가 큰 것 같다.¹⁰⁰⁾ 실제로 한국교회 특히

99) 은준관, “한국교회에 ‘민족적 회개’ 촉구,” 크리스천투데이 (2011. 04. 05)

100) Kang, “Church Leadership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7-8.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와그너는 지금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사도운동의 리더이다(노영근,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교회 예배에서의 설교와 직통계시: 고전 14장을 중심으로,” 『대한논총』 4 (2012), 188-89, 194-97; P. Wagner,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서울: 웨키나, 2006);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절대 권력을 지닌 스타로 부각되었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훈련받으므로 교회가 외형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면이 없지 않았다.¹⁰¹⁾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팽창 이면에는 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한국교단과 교계는 수도 없이 분열되었다.¹⁰²⁾ 노영식은 한국 교회지도자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와 양상을 아래처럼 지적한다.¹⁰³⁾

[한국교회 체제]는 카리스마적인 특수한 인물이나 소수의 지도자 집단에 의한 지배체제로서 정치권력의 과두화(寡頭化)와 독점화로 정책회로가 하향성과 폐쇄성을 지니게 되며, 모든 정책수립은 소수의 지도자 집단인 고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일반 백성들은 지배자들로부터 충성과 복종만을 강요[당한다]. ([이탤릭체는 필자의 것])

한국 교회의 당회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조직 체계로써, 소수가 교회 전반의 정책 입안과 결정 그리고 집행권을 행사하며 권력의 독점화를 피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⁰⁴⁾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당회원인 소수의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로 교회에 군림하여 왔으며, 평신도들은 교회의 직분을 일종의 권력이나 계급으로 인식하여왔다. 특히 대다수의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교회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은퇴할 때에 세습을 공고히 하므로 성도들을 수직적 권력구조와 집단주의에 맹종하도록 길들여 왔다.¹⁰⁵⁾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계급적 서열로 인식하여

Wagner, 『오늘날의 사도』 *Apostles Today*, 박선규 역, 서울: 웨키나, 2008]).

101)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472-73.

102)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473.

103) 노영식, 『한국인 교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142.

104) 노영식, 『한국인 교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142.

105)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473.

서리집사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을 승진으로 생각하고 있다.¹⁰⁶ 한국교회에 변질된 사회계급구조적(hierarchical) 권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큰 교단 대표 선거와 관련 “3억 쓰면 낙선하고 5억 쓰면 당선 된다”는 3락(落) 5당(當)은 과거사례가 되었고, 이제는 “10당(當) 5락(落)”이 되었다¹⁰⁷)는 슬픈 현실이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정통신학” 혹은 “보수신학”을 외치지만, 실상 내면에는 온갖 권력다툼과 물질만능주의와 명예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⁰⁸ 뿐만 아니라,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교회법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법정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즐겨하고 있다(교회법이 무력하여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는 마치 고린도교회의 힘있는 소수가 자신들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 부조리가 가득한 로마법정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 해결하려는 것과 비슷하다(3.3). 오늘날 한국 법정의 판사, 검사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비리와 허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5. 나가는 말

고린도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주요 원인은,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인 다툼이나 쟁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목회자인 바울과 소수의 힘있는 부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힘있는 소수와 힘없는 다수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다수는 힘있는 소수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106) 노영식, 『한국인 교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143.

107) 기독교 신문, 제 2082호 (2011. 10. 23), 11.

108)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473.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다수의 대변인 겸 보호자 역할을 하는 바울이 힘있는 소수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처신과 행동을 좌절시키고 변화시키려는 데서 오는 갈등과 다툼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타협 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있는 소수를 변화시키려 하고, 힘있는 소수는 그것을 거부하며 바울을 대적하는 데서 오는 다툼이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고린도교회의 문제점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교회의 목회자와 소수의 지도자들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갈등과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량적인 면에서 권력다툼을 하고 분열한다는 점에서는 고린도교회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고 설교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갔다던,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세속에 물들어 있고,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교회의 소수의 영향력 있는 평신도지도자들, 특히 장로들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주도권 획득을 놓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며, 중국에는 법정 소송과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 중의 하나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원로목사 추대예배(2010년 12월 26일)를 드리면서, 자신의 지난 40년의 목회활동 중 “5가지를 참회”하고 싶다고 피력하였다.¹⁰⁹⁾ 참회의 내용 중에는 “소외되고 연약한 교인들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던 일”과 “교회 내 기득권층에게 예언자적인 설교를 제대로 못했던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회 내 기득권층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¹¹⁰⁾

국가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인 현 시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09) http://cafe.naver.com/3927_alive/354.

110) 노영근,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본 고린도교회의 문제점들: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대한논총』 3 (2011), 149-50.

무장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때이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기득권과 절대 권력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을 것이다.¹¹¹⁾

111) 노영근, “사회적접근을 통해본 고린도교회의 문제점들: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151.

참고문헌

- 강병도(편). 『고린도전서 1-16장』. 카리스종합주식 17. 서울: 기독지혜사, 2003.
- 권성수. 『고린도전서 1』. 서울: 햇불, 2000.
- 기독교신문. 제 2082호 (2011. 10. 23).
- 김영한.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한국교회 개혁.” 「종교개혁학술세미나」 (2017): 2-8.
- 노영근. “사회적 접근을 통해본 고린도교회의 문제점들: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대한논총」 3 (2011): 117-51.
- _____.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교회 예배에서의 설교와 직통계사: 고전 14장을 중심으로.” 「대한논총」 4 (2012): 187-220.
- 노영식. 『한국인 교회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박윤선. 『고린도전서』. 서울: 영음사, 1989.
- 은준관. “한국교회에 ‘민족적 회개’ 촉구.” 「크리스천투데이」 (2011. 04. 05).
- 이민규. “고린도교회의 분열의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고전 1:10-13).” 「성경과 신학」 37 (2005): 451-77.
- 이장식. “영성과 설교.” 「제 16회 기독교 학술원 영성 포럼 자료집」 (2011년 11월 3일).
- 이종전.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기: 대한신대원출판부, 2010.
- 정주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서울: 생명의 양식, 2017.
- 제자원(편). 『고린도전서 1-9장』. 옥스퍼드원어성경대진. 서울: 제자원, 2006.
- Barclay, J. M. G. “Thessalonica and Corinth: Social Contrasts in Pauline Christianity.”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Methods*, edited by. S. E. Porter and C. A. Ev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Barrett, C. K.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London: Adam & Charles

- Black, 1968.
- _____. *Church, Ministry, and Sacraments in the New Testament*.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85.
- Barton, S. C. "Paul's Sense of Plac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Community Formation in Corinth." *NTS* 32 (1986): 225-46.
- Calvin, J. *The Calvin Commentary*,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울: 성서원, 1999.
- Chow, J. K. *Patronage and Power: A Study of Social Networks in Corin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Clarke, A. D. *Secular and Christian Leadership in Corinth: A Socio-historical and Exegetical Study of 1 Corinthians 1-6*. Leiden: E. J. Brill, 1993.
- Coyle, J. T. "The Agape/Eucharist Relationship in 1 Corinthians 11." *Grace Theological Journal* 6/2 (1985): 411-24.
- Dio Chrysostom. 5 vols, trans. J. W. Cohoon and H. L. Crosby. London: Heinemann.
- Elliott, J. H. *What is Social-Scientific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Engberg-Pedersen, T. "The Gospel and Social Practice according to 1 Corinthians." *NTS* 33 (1987): 557-84.
- Garnsey, P. *Social Status and Legal Privilege in the Roman Empire*.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0.
- Farmer, D. "The Lord's Supper Until He Comes." *Grace Theological Journal* 6 (1985): 391-401.
- Fiore, B. "Covert Allusion in 1 Corinthians 1-4." *CBQ* 47/1 (1985): 85-101.
- Greidanus, 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 Hock, R. F.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Tentmaking and Apostleship*.

- Philadelphia: Fortress, 1980.
- Horrell, D. G. *The Social Ethos of the Corinthian Correspondence: Interests and Ideology from 1 Corinthians to 1 Clement*. Edinburgh: T & T Clark, 1996.
- Horsley, R. A. "Gnosis in Corinth: 1 Corinthians 8:1-6." *NTS* 27 (1981): 32-51.
- Judge, E. A.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Som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Ideas of Social Obligation*. London: The Tyndale Press, 1960.
- Justinian. *The Digest of Justinian*, In Mommsen, edited by T & Kruger, P. Vol 1, trans. A. Watson.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ang, G. "Church Leadership within the South Korean Context." D. Th. diss,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02.
- Kelly, J. M. *Roman Litigation*.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6.
- Kistemaker, S. J. *Exposition of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Longman, T.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Malina, B. J.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Malina, B. and Neyrey, J. "Honor and Shame in Luke-Acts: Pivotal Values of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Social World of Luke-Acts: Model for Interpretation*. edited by J. Neyrey. Peabody, MA: Hendrickson, 1991.
- Martin, D. B. *Slavery as Salvation: The Metaphor of Slavery in Pauline Christianit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0.
- Marshall, P. *Enmity in Corinth: Social Conventions in Paul's Relations with the Corinthians*. Tübingen: Mohr, 1987.

- Mitchell, *Paul and the Rhetoric of Reconcilia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Murphy-O'Connor, J. *St. Paul's Corinth: Texts and Archaeology*.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3.
- Pliny(the Younger). *Epistulae*, trans. W. Melmoth. 2 vols. London: Heinemann.
- Robertson, A and Plummer,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 & T Clark, 1911.
- Scroggs, R.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NTS* 26 (1980): 164-79.
- Silva, M. *Has the Church misrea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Strabo. *The Geography of Strabo*, trans. H. L. Jones. 8 vols. London: Heinemann.
- Theissen, G.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Essays on Corinth*, trans. J. H. Schü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 Thurston, B. B. "'Do This': A Study on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Restoration Quarterly* 30/4 (1988): 207-17.
- Wagner, P.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서울: 웨키나, 2006.
- _____. 『오늘날의 사도』 *Apostles Today*, 박선규 역, 서울: 웨키나, 2008.
- Welborn, L. L. "On the Discord in Corinth: 1 Corinthians 1-4 and Ancient Politics." *JBL* 106/1 (1987): 85-111.
- Winter, B. W. "Civil litigation in secular Corinth & the Church: The Forensic Background to 1 Corinthians 6:1-8," In *Understanding Paul's Ethics: Twentieth Century Approaches*. edited by. B. S. Rosner. Grand Rapids: Eerdmans, [1991] 1995.
- _____. *Philo and Paul among the Soph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7.

Witherington, B.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http://cafe.naver.com/3927_alive/354.